

2023바다미술제  
가이드북

Sea Art Festival 2023  
Guidebook

깜박이는

해안

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es

상상하는

바다



깜박이는  
해안

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ties  
상상하는  
바다

## 목차 Contents

전시개요

감독 메시지

작품배치도 & 관람안내

디지털 콘텐츠, 오디오가이드

실외전시, 실내전시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 (Other Seas)」

전시 연계 프로그램

    심포지엄 「바다의 목소리(Ocean Voices)」

    매니페스토

    퍼블릭 프로그램 (워크숍/아티스트 토크/체험)

출품작품

전시장

종합안내소, 아트샵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주최·주관/후원·협찬

Overview

Artistic Director's Message

Map & Visit

Digital Content, Audio Guide

Outdoor / Indoor Exhibition

Screening 「Other Seas」

Related Program

    Symposium 「Ocean Voices」

    Manifesto

    Public Program (Workshops/Artist Talk/Activities)

Artworks

Venues

Information Center, Art Shop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Host·Organizer / Sponsors·Supporters

## 전시개요 Overview

Sea Art Festival 2023

*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es*

**Dates**

2023. 10. 14. - 11. 19. (for 37days)

**Venue**

Ilgwang beach, Gangsongjeong Park, Ilgwangcheon Stream,  
Indoor Venue 1 Old Ilgwang Church,  
Indoor Venue 2 Warehouse, Sea Art Festival Lab

**Artistic Director**

Irini Papadimitriou (Greece)

**Artists**

31 teams from 20 countries (43 people)

**Artworks**

Outdoor Venue : 15 works / Indoor Venue : 27 works

**Hosted and Organiz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Gijang-gun

2023바다미술제

**깜빡이는 해안, 상상하는 바다**

**기간**

2023. 10. 14. - 11. 19. (37일간)

**장소**

일광해수욕장 백사장, 강송정 공원, 일광천,  
실내전시장1 (구)일광교회, 실내전시장2 신당 옆  
창고,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전시감독**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 (그리스)

**참여작가**

20개국 31팀(43명)

**출품작품**

실외 15점 /실내 27점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기장군

2023바다미술제 《깜빡이는 해안, 상상하는 바다(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es)》는 바다와 우리의 관계를 재고하게 하고, 해안의 아름다움과 취약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바다와 해양 환경에 관여하기 위한 대안적인 틀과 비전을 모색합니다.

바다는 우리의 삶과 자본주의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생존의 필수적인 원천일 뿐만 아니라 식량, 의약품, 에너지, 광물, 무역, 여행 등을 위해 이용하는 거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크루즈 관광, 해운, 남획부터 핵실험, 오염, 심해 채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바다에 해를 끼쳐 해양 생태계와 서식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해안, 상상하는 바다》는 해안에서 바라본 바다를 상품 이동에 쓰이는 분절되고 추상적인 표면으로 보는 대신 우리가 이 수역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올해 바다미술제는 바다 및 해양 생태와 맺는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고, 저항과 복원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협력과 공동의 비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시감독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

*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es*, this year's edition of the Sea Art Festival, is inviting us to rethink our relationship with the sea, referring to the beauty but at the same time, the fragility of our shores, and exploring alternative frameworks and visions for engaging with the ocean and marine environments.

The sea is deeply embedded in our lives and capitalist society, a vital source for our survival, but also a vast industry we exploit for food, medicines, energy, minerals, trading, travel and so on. But increased human activity, from extensive cruise tourism, shipping and overfishing to nuclear testing, pollution and deep-sea mining have been plaguing the sea, having a huge impact on marine ecosystems and habitats.

Instead of viewing the sea from the coast as a divided and abstract surface for moving around commodities, *Flickering Shores, Sea Imaginaries* reminds us that we are part of this body of water. This year's Sea Art Festival aims to explore new relationships with the sea and its ecologies, enabling spaces for cooperation, collective visions and synergies as a call to resistance and restoration.

Artistic Director, **Irini Papadimitriou**

## 작품배치도 Map



### 관람 추천 코스 Recommended Tour Routes



## 관람안내 Visit

**전시 기간** 2023. 10. 14. (토) - 11. 19. (일) 37일간, 휴일 없음  
바다미술제는 별도의 입장권 없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시간** 11:00 - 19:00

**Dates** 2023. 10. 14. (Sat) - 11. 19. (Sun) for 37 days, Open all days  
Entry to Sea Art Festival 2023 is free of charge.

**Times** 11 a.m. - 7 p.m.

### 관람 시 주의사항

- 작품 접촉 및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작품은 눈으로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객이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해 배상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영상 작품은 예기치 않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작품 보호선을 지켜주세요.

### 실내 전시장

- 실내 전시장에는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해 실내 전시장에서는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실내 전시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Guidelines

- Please do not touch the artworks unless stated otherwise in the caption.
- Visitors may have to compensate for the intentional destruction and mutilation of artworks.
- Some artworks contain sound effects.

### Indoor Venue

- Please refrain from bringing food and beverages into indoor exhibition venues.
-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designated pathway at all indoor exhibition venues.
- Pets are not allowed in any indoor exhibition venues.

## 디지털 콘텐츠, 오디오 가이드 Digital Content, Audio Guide

### 디지털 콘텐츠

2023바다미술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Digital Content

You can find digital content on the official website of Sea Art Festival 2023.

국문 KOR



영문 ENG



### 오디오 가이드

2023바다미술제 참여 작가와 출품 작품 등 관람 정보를 오디오 콘텐츠로 제공합니다. 국/영문으로 제공되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시장에 마련된 QR코드를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udio Guide

Sea Art Festival 2023 provides artist biographies and audio commentary in both Korean and English.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or scan the QR code next to the artworks with your device.

오디오 가이드  
Audio Guide



## 오시는 길 Direction

### 지하철

동해남부선 - 일광역 1번 출구

### 시내버스

일반버스 : 36, 180, 182, 187, 188

마을버스 : 기장군2(학리), 기장군3(서생), 기장군8, 기장군8-1(내덕), 기장군9(용소왕복), 기장군10(신명)

### 승용차

일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3길 17)

바다미술제는 별도의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일광해수욕장 인근의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Subway

Donghae Nambu Line - Exit 1

### Bus

Bus : 36, 180, 182, 187, 188

Town Bus : Gijang-gun2(Hakri), Gijang-gun3(Seosaeng), Gijang-gun8, Gijang-gun(Naedeok), Gijang-gun(Yongso), Gijang-gun10(Shinmyeong)

### Car

Ilgwang beach

(17, Samseong 3-gil, Ilgw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Visitors are advised to use public parking lot or take public transportation.



## 실외전시 Outdoor Exhibition



- |   |   |  |
|---|---|--|
| <p>1 제이알 카펜터 &amp; 토모키하라,<br/>&lt;이것은 좋은 사인이 아니다&gt; 1-1~1-5<br/>J.R. Carpenter &amp; Tomo Kihara,<br/><i>THIS IS NOT A GOOD SIGN 1-1~1-5</i></p> | <p>2 손몽주, &lt;일광 스윙&gt;<br/>Mongjoo Son, <i>Ilgwang Swing</i></p> <p>3 야스아키 오니시, &lt;경계의 레이어&gt;<br/>Yasuaki Onishi, <i>Layer of Boundary</i></p> | <p>4 수퍼플렉스, &lt;모든 것은 물이다&gt;<br/>SUPERFLEX, <i>All Is Water</i></p> <p>5 게리 쯡시 장, &lt;오션 브리핑&gt;<br/>Gary Zhexi Zhang, <i>Ocean Briefings</i></p> |
|---|---|--|

전시장  
바로가기  
Venue



- 6 조은필, <빛과 어둠사이>  
Cho Eun-Phil, *Between Light and Darkness*
- 7 김덕희, <메아리, 바다 가득히>  
Kim Doki, *Echo, Filled in the Sea*
- 8 펠릭스 블룸, <바다의 풍문>  
Félix Blume, *Rumors from the Sea*
- 9 양자주, <바다로부터>  
Jazoo Yang, *Bricks from the Sea*
- 10 스튜디오 1750, <수생정원>  
STUDIO 1750, *Aquatic Garden*
- 11 아리 바유아지, <파도의 흔적>  
Ari Bayuaji, *Traces of the Waves*
- 12 시마 누스라트, <떠 있는 조각>  
Seema Nusrat, *Floating Fragments*
- 13 윤필남, <심해의 명상>  
Yun Pil Nam, *Deep Sea Meditation*
- 14 레나타 파도반, <맹그로브 시리즈>  
Renata Padovan, *Mangal series*
- 20 로베르티나 세브야니, <해일의 속삭임: 부산의 해양 이야기>  
Robertina Šebjanič, *Tidal Whispers: Busan's Oceanic Tales*

## 실내전시장 1 (구)일광교회 Indoor Venue 1 Old Ilgwang Church

전시장  
바로가기  
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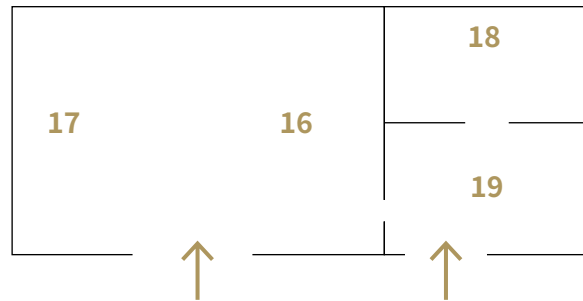


- 15 무한나드 쇼노, <바다에서의 달콤한 허우적거림>  
Muhannad Shono, *And to Flounder in this Sea is Sweet to Me*



## 실내전시장 2 신당 옆 창고 Indoor Venue 2 Warehouse

전시장  
바로가기  
Venue



- 16 샤일레쉬 비알, <사무드라 만탄: 바다 휘젓기>  
Shailesh BR, *Samudra Manthan: Churning of the Ocean*
- 17 율리아 로만 & 김가영, <해조공예과 스튜디오>  
Julia Lohmann & Kayoung Kim, *Department of Seaweed Studio*
- 18 왕덕경, <발 아래 모래알 사이로 물이 스며들 때>  
Dukkyoung Wang, *when water seeps through the grains of sand under your feet*
- 19 칼립소36°21, <해양 해양 해양>  
Calypso36°21, *Moheet, Derya, Haeyang, Ocean, Ocean, Oc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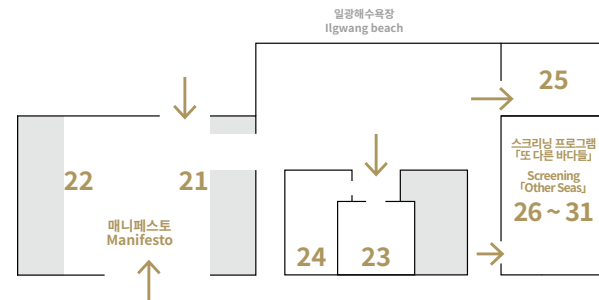


##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Sea Art Festival 2023 Lab

이번 2023바다미술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은 전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열린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 개의 하얀 건물에서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체험프로그램과 미래의 인간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매니페스토, 바다의 많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는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 (Other Seas)」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Sea Art Festival 2023 Lab is a space where diverse programs are offered alongside the exhibition as part of the Sea Art Festival 2023. Within three distinctive white buildings, visitors have the opportunity to partake in workshops, artist talk, and activities. Also, we have initiated a manifesto for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nd discussing the impact of current and future human activities and relations with marine environments. Visitors can experience stories from and about the sea through a screening titled 「Other Seas」 that features short fil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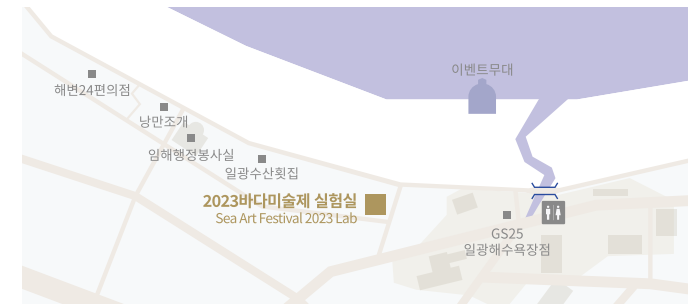
전시장  
바로가기  
Venue



- 21 실험실 C <흙·탕·물>  
Lab C, *Muddy-Water*
- 22 아틀리에 엔엘, <모래알 속에서 세상을 보다: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  
Atelier NL,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Unveiling South Korea's Hidden Narratives*
- 23 리퀴드 타임 (제이크 볼튼 & 미리암 마티센), <메탄올 블루>  
Liquid Time (Jacob Bolton & Miriam Matthiessen), *Methanol Blue*

- 24 정은혜 & 이준, <플라스틱 만다라: 생태계 순환을 위한 문양>  
Eunhae Jung & Zune Lee, *Plastic Mandala: A Pattern for the Cycle of Life*
- 25 카시아 몰가, <온전해지는 방법>  
Kasia Molga, *How to Become Wholesome*
- 26 장승욱, <바다 위의 별>  
Jang Seungwook, *Stars On the Sea (S.O.S)*
- 27 메릴린 페어스카이, <새>  
Merilyn Fairskye, *Birds*

- 28 제이콥 허위츠-굿맨 & 다니엘 켈러, <시스테더스: 해양도시건축>  
Jacob Hurwitz-Goodman & Daniel Keller, *The Seasteaders*
- 29 레베카 모스, <국제수역>  
Rebecca Moss, *International Waters*
- 30 엠마 크리츨리, <공동의 유산>  
Emma Critchley, *Common Heritage*
- 31 하이퍼콤프, <물고기 입맞춤>  
Hypercomf, *Fish Kissed*





##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 (Other Seas)」

2023바다미술제가 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섯 편의 단편 영상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작품의 내용은 해운산업의 실태와 해양 토지 개발, 심해 채굴, 해수면 상승과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해수 오염 등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탐사보도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영상들을 관람하며 바다 생태계와 우리의 관계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상영일정

2023. 10. 14. - 11. 19.

(전시기간 내 매일 상영, 11:00 - 18:00)

### 장소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특설 상영관

### 참여 방법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및 예약 마감일 되지 않은 회차에 한해 현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2023바다미술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 (Other Seas)」  
바로가기  
Bookings



회차	시간	상영작품
1	11:00 - 12:00	<물고기 입맞춤> 하이퍼컴프   10분 13초   드라마
		<국제 구역> 레베카 모스   21분 6초   다큐멘터리
		<새> 메릴린 페어스카이   28분 37초   예술영화
2	12:30 - 13:30	<바다 위의 별> 장승욱   6분 6초   드로잉 애니메이션
		<공동의 유산> 엠마 크리츨리   25분   SF & 논픽션
		<시스티더스 : 해양도시건축> 제이콥 허위츠-굿맨&다니엘 켈러   28분   다큐멘터리
	13:45 - 14:45	휴식시간
3	15:00 - 16:00	<물고기 입맞춤> 하이퍼컴프   10분 13초   드라마
		<국제 구역> 레베카 모스   21분 6초   다큐멘터리
		<새> 메릴린 페어스카이   28분 37초   예술영화
4	16:30 - 17:30	<바다 위의 별> 장승욱   6분 6초   드로잉 애니메이션
		<공동의 유산> 엠마 크리츨리   25분   SF & 논픽션
		<시스티더스 : 해양도시건축> 제이콥 허위츠-굿맨&다니엘 켈러   28분   다큐멘터리

## Screening 「Other Seas」

Session	Time	Artwork
1	11:00 - 12:00	<i>Fish Kissed</i> Hypercomf   10min 13sec   Drama
		<i>International Waters</i> Rebecca Moss   21min 6sec   Documentary
		<i>Birds</i> Meryllyn Fairskye   28min 37sec   Artist Film
2	12:30 - 13:30	<i>Stars On the Sea (S.O.S)</i> Jang Seungwook   6min 6sec   Drawing Animation
		<i>Common Heritage</i> Emma Critchley   25min   SF & Nonfiction
		<i>The Seastealers</i> Jacob Hurwitz-Goodman & Daniel Keller   28min   Documentary
	13:45 - 14:45	Break Time
3	15:00 - 16:00	<i>Fish Kissed</i> Hypercomf   10min 13sec   Drama
		<i>International Waters</i> Rebecca Moss   21min 6sec   Documentary
		<i>Birds</i> Meryllyn Fairskye   28min 37sec   Artist Film
4	16:30 - 17:30	<i>Stars On the Sea (S.O.S)</i> Jang Seungwook   6min 6sec   Drawing Animation
		<i>Common Heritage</i> Emma Critchley   25min   SF & Nonfiction
		<i>The Seastealers</i> Jacob Hurwitz-Goodman & Daniel Keller   28min   Documentary

This program is screening six short films related to the theme of the Sea Art Festival 2023. It covers an array of different topics related to the ocean, including the state of the shipping industry, marine land development, deep-sea mining, rising sea levels, and sea water pollution from nuclear power plants. From investigative journalism to animation, these films offer a multifaceted look at our diverse relationships with the ocean ecosystem.

### Program Schedule

2023. 10. 14 - 11. 19.

Open all days 11 a.m. - 6 p.m.

### Venue

Sea Art Festival 2023 Lab Cinema

### Bookings

Advance reservations are recommended, but on-site reservations are also possible if there are free seats.

##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전시 연계 프로그램은 전시와 함께 2023바다미술제 심포지엄 「바다의 목소리」, 퍼블릭 프로그램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심포지엄 「바다의 목소리(Ocean Voices)」

매니페스토

퍼블릭 프로그램 (워크숍/아티스트 토크/체험)

워크숍 1 | 흙탕물을 일으키자

워크숍 2 | 해조공예과 : 기장 다시마로 오브제 만들기

워크숍 3 | 초경계자들

아티스트 토크 | 플라스틱 만다라 : 생태계 순환을 위한 문양

체험 1 | 괴물이 산다

체험 2 | 200명의 초경계자들

## Related Program

The program includes opportunities for visitors to actively engage, such as the Sea Art Festival 2023 Symposium titled 「Ocean Voices」, various public programs, all in addition to the exhibition.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official website.

### Overview

Symposium 「Ocean Voices」

Manifesto

Public Program (Workshops/Artist Talk/Activities)

Workshop 1 | Muddy-Water

Workshop 2 | Department of Seaweed : Algae-craft

Workshop 3 | Trans-boundaries

Artist Talk | Plastic Mandala : A Pattern for the cycle of Life

Activity 1 | Monster in the sea

Activity 2 | 200 Trans-boundaries

## 심포지엄 「바다의 목소리」

심포지엄 「바다의 목소리 (Ocean Voices)」는 바다와의 현재 및 미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인간 활동이 어떻게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의 학자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가 착취하는 산업으로서의 바다와 채굴 관행을 살펴보고 예술을 통해 관계 회복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시** 2023. 10. 15. (일) 14:00

**장소**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4층 강당

**좌장** 남윤경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기조연설**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 2023바다미술제 전시감독

### 발제자 및 발제 주제

강동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사)한국해양학회 회장

- 물, 바다 그리고 과학

페트라 린하르트바 TBA21 아카데미 디지털 & 이노베이션팀 디렉터

- 살아있는 바다를 위한 디지털 생태계

제이알 카펜터 2023바다미술제 참여작가, 연구원, 저자

- 기록해양 활성화

정은혜 2023바다미술제 참여작가, 생태예술단체 에코오롯 대표

- 경외심의 예술: 보이지 않는 바다의 상상

## Symposium 「Ocean Voices」

Symposium 「Ocean Voices」 aims to reflect on our current and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ocean and explore the impact of human activities on marine ecosystems. Consisting of bot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e symposium brings together scholars and artists from a wide range of disciplines to examine the ocean as an industry exploited by capitalism and extractive practices, with time set aside for participants to imagine a restorative relationship with our world's ocean through the arts.

**Date** Oct. 15 (Sun) 2 p.m., 2023

**Venue** Auditorium, 4F, Gijang Fisheries Research Center

**Chair** Younkyeong Nam Professor of earth scienc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Keynote Speaker** Irimi Papadimitriou Artistic Director, Sea Art Festival 2023

### Participants & Presentation titles

Dong Jin Kang Principal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hairman at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 Water, Ocean, and Science

Petra Linhartova Director of Digital & Innovation, TBA21-Academy

- A Digital Ecosystem for a Living Ocean

J.R. Carpenter Artist, Researcher, Author

- Activating Archival Oceans

Eunhae Jung Artist, Art Director of ECOOROT

- Art of Awe: Imagining the Ocean

## 매니페스토

2023바다미술제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매니페스토는 미래의 인간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도출하는 온라인 담론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외 해양학자, 과학자, 예술가,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해양 공동체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공통 프레임 워크를 시작으로 선언문을 작성했고, 작성된 선언문은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일시** 2023. 8. 23. (수) - 9. 15. (금)

**진행방법** 온라인 토론

### 리더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 [2023바다미술제 전시감독](#)  
제이알 카펜터 [2023바다미술제 참여작가, 연구자, 저자](#)  
줄리아 챔피언 [연구원](#)

**외 참여 총 53명**

## Manifesto

As part of the Sea Art Festival 2023, we have created a program for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nd discussing the impact of current and future human activit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Together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ceanographers, scientists, artist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we have initiated a collectively authored manifesto composed of questions exploring, interrogating and understanding our relationships with the sea. This is the beginning of an ongoing conversation and Lab visitors are invited to add their questions.

**Dates** Aug. 23 (Wed) - Sep. 15 (Fri), 2023

**Venue** Online

### Led by

Irini Papadimitriou [Artistic Director, Sea Art Festival 2023](#)  
J.R. Carpenter [Artist, Researcher, Author](#)  
Giulia Champion [Researcher](#)

**and 53 participants**

퍼블릭 프로그램 (워크숍 / 아티스트 토크 / 체험)

워크숍 1 | 흙탕물을 일으키자

참여작가 : 실험실 C

참여대상 : 초등학교생 및 학부모

일광천 일대의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기수역\*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야외 활동 및 연을 만드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수역 :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

- 워크숍 과정들이 반영된 결과물은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에서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부 기수역 해양생물 관찰**  
기수역 해양생물 관찰 일광천 기수역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야외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시** 1회차 2023. 8. 23. (수) 10:00  
2회차 2023. 8. 23. (수) 14:00

**장소** 일광천일대

**2부 연 만들기 & 연 날리기**  
1부에서 관찰한 해양 생물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연장 배무삼 명장과 함께 연을 만들어 보고 직접 연을 날렸습니다.

**일시** 1회차 2023. 8. 24. (목) 10:00 - 12:00  
2회차 2023. 8. 25. (금) 10:00 - 12:00

**장소** 가마골소극장 2층 & 일광해수욕장 일대

Public Program (Workshops / Artist Talk / Activities)

Workshop 1  
Muddy-Water

Artist : Lab C

Participants : This workshop is open to elementary school-age participants and their parents.

To draw attention to the changes currently going on 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Ilgwangcheon Stream area, we hosted an outdoor exercise to observe marine life in the brackish water zone and a kite-making activity.

- Outcomes from these workshops are presented at the Lab C installation at the Sea Art Festival 2023 Lab.

**Part 1. <Marine Organism Observations>**  
Participants had outdoor learning time to observe and talk about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brackish water zone of Ilgwangcheon Stream.

**Dates** Session 1 Aug. 23 (Wed) 10 a.m., 2023  
Session 2 Aug. 23 (Wed) 2 p.m., 2023

**Venue** Ilgwangcheon Stream area

**Part 2. <Making Kite & Kite flying>**  
By depicting the marine life observed in Part 1 through paintings, participants made their own kites and fly them with Musam Bae, a paper kite master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Busan.

**Dates** Session 1 Aug. 24 (Thur) 10 a.m. - 12 p.m., 2023  
Session 2 Aug. 25 (Fri) 10 a.m. - 12 p.m., 2023

**Venue** 2F, Gamagol Theater & Ilgwang beach area

## 전시 연계 프로그램 Related Program

### 워크숍 2 | 해조공예과 : 기장다시마로 오브제 만들기

참여작가 : 율리아 로만 & 김가영

참여대상 : 일반 시민, 다시마 관련 종사자, 지역 주민 등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이 자연에서 얻은 해양 식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것과 우리 삶의 연결점을 생각해 봅니다. 해양 식물이 예술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Bookings



#### 1부 아티스트 토크 + 오브제 만들기

일광 지역 주민 및 어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작가와 함께 지역의 해양 식물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기장 다시마를 이용한 소품들을 만들어 봅니다.

#### 2부 오브제 만들기

작가 아틀리에처럼 꾸민 전시공간에서 작가와 함께 기장 다시마를 이용하여 작은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일시 2023. 10. 28. (토) - 29. (일)

1부 11:00 - 13:30 (사전신청)

2부 15:00 - 18:00 (현장참여)

장소 실내전시장2 신당 옆 창고

## 전시 연계 프로그램 Related Program

#### Part 1. <Artist Talk + Making Object with Gijang Kelp>

Residents and fishermen in the Ilgwang beach area will join the artist in a conversation about local marine plants and make props using locally harvested kelp.

#### Part 2. <Making Object with Gijang Kelp>

Participants will spend time making small props using locally harvested kelp.

Dates Oct. 28 (Sat) - Oct. 29 (Sun), 2023

Part 1 11 a.m. - 1:30 p.m. (For pre-applicants)

part 2 3 p.m. - 6 p.m. (Open Studio)

Venue Indoor Venue 2 Warehouse

### Workshop 2

### Department of Seaweed : Algae-craft

Artists : Julia Lohmann & Kayoung Kim

Participants : All aquaculture workers and local residents are welcome.

The program fosters an understanding of marine plants found in nature, such as seaweed and kelp, and has participants consider their connection to our lives.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marine plants to be used as materials for art, we provide an opportunity for visitors to get some real hands-on experience.

워크숍 3 | 초경계자들

참여작가 : 실험실 C  
참여대상 : 사전 신청 및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 참여 가능

지역 및 생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험실 C 작가들과 함께 연을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이라는 오브젝트에 담긴 리서치 내용을 공유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함께 포함되어 여러 이야기가 교차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 2023. 10. 20. (금) 11:00 - 13:00

장소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신청 바로가기  
Bookings



Workshop 3  
Trans-boundaries

Artists : Lab C  
Participants : Advance reservations are recommended, but on-site reservations are also possible if there are free seats.

This program will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geography and ecology, while also giving you a chance to make your own kite with Lab C artists. An artist talk will be included to share the research these artists from Lab C have done behind the kite as an object, creating a venue for multiple stories to intersect.

Date Oct. 20 (Fri), 11 a.m. - 1 p.m., 2023

Venue Sea Art Festival 2023 Lab

아티스트 토크 | 플라스틱 만다라 : 생태계 순환을 위한 문양

참여작가 : 정은혜 & 이준  
참여대상 : 사전 신청 및 잔여석이 있을 경우 현장 참여 가능

**1부** 거두기와 배치에 대하여 by 정은혜  
2023바다미술제 출품 작품 창작의 취지와 과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만다라 창작을 위한 핵심 개념인 ‘거두기’와 ‘배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부** 플라스틱 만다라 시청각화 by 이준  
지구의 슈만 공명 주파수(Schumann Resonance frequency)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만다라 패턴의 시청각화에 대해 논의합니다.

일시 2023. 10. 21. (토) 14:00 - 16:00

장소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신청 바로가기  
Bookings



Artist Talk  
Plastic Mandala : A Pattern for the Cycle of Life

Artist : Eunhae Jung & Zune Lee  
Participants : Advance reservations are recommended, but on-site reservations are also possible if there are free seats.

**Part 1. <About Dismantling and Placement by Eunhae Jung>**  
Starting with a brief explanation of the purpose and process of creating the artworks for the Sea Art Festival 2023, participants discuss the notions of “dismantling” and “placement,” the two key concepts for the creation of plastic mandalas.

**Part 2. <Plastic Mandala Audio Visualization by Zune Lee>**  
Based on an explanation of the earth’s Schumann resonance frequency, participants discuss the audio visualization of plastic mandala patterns.

Date Oct. 21 (Sat) 2 p.m. - 4 p.m., 2023

Venue Sea Art Festival 2023 Lab

체험 1 | 괴물이 산다

참여작가 : 스튜디오 1750

참여대상 : 일반 시민 (어린이,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참여)

2023바다미술제 관객 참여형 작품인 <수생정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다 생명체 형상의 종이 모자를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작품의 몰입적 감상을 위해 관객은 직접 만든 종이 모자를 착용하여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일시 2023. 10. 14. (토) - 11. 19. (일)

장소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Activity 1  
Monster in the sea

Artist : STUDIO 1750

Participants : All welcome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An experience program in with Sea Art Festival 2023's audience-led participatory artwork, *Aquatic Garden* inviting visitors to make paper hats in the shape of sea creatures. For the immersive appreciation of the work, participants will then wear their paper hats and become part of the work.

Dates Oct. 14 (Sat) - Nov. 19 (Sun), 2023

Venue Sea Art Festival 2023 Lab

체험 2 | 200명의 초경계자들

참여작가 : 실험실 C

참여대상 : 일반 시민 (어린이,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참여)

참여방법 : 사전 신청

참여자 : 200명

2023바다미술제 퍼블릭 프로그램 중 「초경계자들」 연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광천에 사는 여러 생물이 그려진 200개의 가오리 연 중 하나의 도안을 이용하여 연을 직접 만들어 보고, 일광 해수욕장에서 만든 연을 날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험실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은 작가의 아늑한 아틀리에처럼 온전히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연을 만들며 동심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일시 전시기간 중 매주 금, 토, 일 (일 8회 운영)

장소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신청 바로가기  
Bookings



Activity 2  
200 Trans-boundaries

Artist : Lab C

Participants : All welcome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Bookings : Pre-registration required

Participants : 200 people

A part of the workshop 「Trans-boundaries」,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make their own kite using one of the 200 stingray kite patterns depicting various creatures that live in Ilgwangcheon Stream, and then fly their kites at Ilgwang Beach. A separate space in the lab is set aside for each person, like an artist's cozy atelier. It is our sincere hope that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reconnect with their childhood by building their own kites in this space.

Dates Every Fri - Sun (8 times per day)

Venue Sea Art Festival 2023 Lab







**1-1~1-5 <이것은 좋은 사인이 아니다>**

제이알 카펜터 & 토모 키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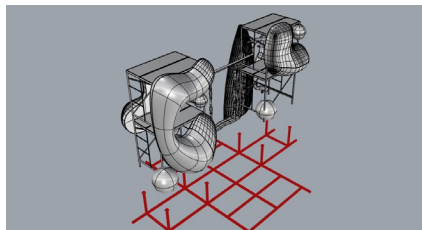
<이것은 좋은 사인이 아니다> 는 과거와 현재의 기후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일광해수욕장의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실물 및 증강현실 (AR) 표지판 시리즈입니다.

**1-1~1-5 THIS IS NOT A GOOD SIGN**

J.R. Carpenter & Tomo Kihara

*This is Not a Good Sign* is a series of physical and augmented reality (AR) poetry signs posing questions about past and present climatic conditions, and responding directly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Ilgwang beach.

\*5개의 사인들이 해변을 따라 이어집니다.  
\*This installation continues across the beach.



**2 <일광 스윙>**

손몽주

손몽주 작가의 스윙 파빌리온 시리즈 중 하나인 <일광 스윙>은 부산 및 일광에서 수집한 오브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에 설치된 그네를 타보며 땅에서 잠시 발을 떼고, 파도의 움직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Ilgwang Swing**

Mongjoo Son

A swing pavilion made of objects found in Busan and Ilgwang invites us to interact with it, take our feet off the ground, and move along with the waves.



**3 <경계의 레이어>**

야스아키 오니시

인간이 만든 펜스 구조물은 분리와 경계를 만듭니다. 작가는 경계 사이의 공간을 꿰뚫어 보며 바다가 겪고 있는 변화와, 인간과 바다를 구분하는 경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바다에서 많은 것을 추출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3 Layer of Boundary**

Yasuaki Onishi

A human-made fence structure creates a separation and border, but looking through this hollow space, the artist invites us to rethink the division between human and sea, consider the transformation the sea is undergoing, and the boundaries of how much we extract from the ocean.



**4 <모든 것은 물이다>**

수퍼플렉스

물고기의 의식에 대한 신비로운 탐구로서, 조기류의 작은 종인 '크로미스 크로미스 (Chromis Chromis)'의 산란 기간 동안 프랑스 코르시카 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물고기의 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 야나 웨그너 (Anja Wegner)가 구성한 실험입니다.

**4 All Is Water**

SUPERFLEX

A mystical exploration of fish consciousness, filmed in Corsica during the spawning period of the Chromis Chromis, a small species of ray-finned fish, explores an experiment set up by scientist Anja Wegner to determine how architecture affects the social behavior of the fish.



**5 <오션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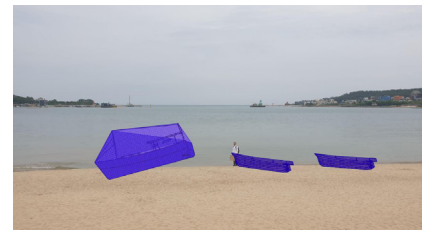
게리 쟁시 장

급변하는 세상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소음의 바다에서 시그널을 찾아 일광 바다를 연출하는 '자막'을 해변에 띄웁니다. 바다미술제 동안 <오션 브리핑>의 자막은 날씨에 따라 매일 변합니다.

**5 Ocean Briefings**

Gary Zhexi Zhang

A series of daily transmissions are taking place over the course of the Sea Art Festival. Taking inspiration from a volatile world, the work functions as a "subtitle" to Ilgwang beach, framing the sea in search for signals in an ocean of noise.



**6 <빛과 어둠 사이>**

조은필

바다의 배라는 익숙한 광경이 푸른색 레이스로 덮여있습니다. 이 푸른 레이스는 사물을 보이지 않게 하지만, 그 아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정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6 Between Light and Darkness**

Cho Eun-Phil

The familiar sight of a boat at sea is enveloped in blue lace partly covering the object, making it opaque, but also accentuating subtleties hidden underneath. Is this the representation of a journey at its beginning or the end?



### 7 <메아리, 바다 가득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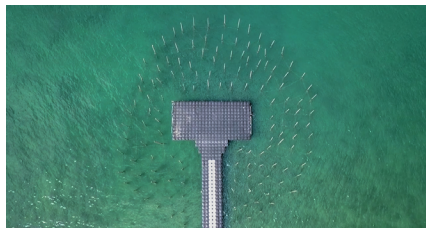
김덕희

진주와 비즈로 복잡하게 짜인 그물 모양의 설치물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진주와 길쭉한 비즈는 암호화된 모스부호로 더 이상 이곳에 함께할 수 없는 소중한 누군가를 향해 쓰인 메시지입니다.

### 7 Echo, Filled in the Sea

Kim Doki

A net-based installation intricately woven with pearls and beads is created based on stories by local residents. The pearls and elongated beads form Morse code encrypted messages written for someone close, who can no longer be here.



### 8 <바다의 풍문>

펠릭스 블룸

해안 중앙에 자리한 대나무 피리 오케스트라는 하루종일 우리 주변의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바다의 속삭임을 들려주는 특별한 콘서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 8 Rumors from the Sea

Félix Blume

A bamboo-flutes orchestra in the middle of the bay is performing unique concerts 24 hours a day, inviting us to listen to the sea surrounding us, and the murmur of the oceans far away.



### 9 <바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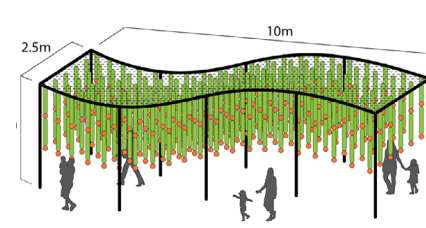
양자주

이 작품은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이 지었던, 이제는 자취를 감춘 흙집 만드는 방법을 되살립니다. 해초와 흙으로 만든 이 작품은 급변하는 도시 발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 9 Bricks from the Sea

Jazoo Yang

Bricks of the Sea revives construction techniques from now forgotten earthen houses built mainly by Korean War refugees. Using seaweed, soil and other material the artist invites us to think about heritage and the things we lose in rapid urban developments.



### 10 <수생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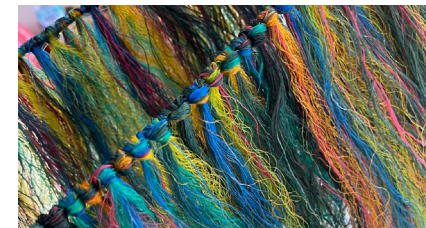
스튜디오 1750

"이 상상의 정원은 기이한 돌연변이 바다 생물이 변형된 산호초 사이를 유영하는 경험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후변화로 산호초가 사라지면 그것에 의존하는 해양생물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 10 Aquatic Garden

STUDIO 1750

An imaginary garden invites us to experience it as a peculiar mutated sea creature swimming through transformed coral reefs. Where can marine life that depends on coral reefs go once coral reefs disappear due to climate change?



### 11 <파도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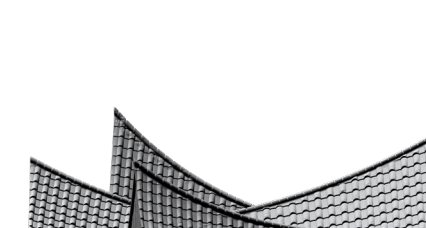
아리 바이우지

우리는 바다를 보살피는 동시에 바다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플라스틱에게 새롭고 가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해안과 여러 해변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밧줄을 해체하여 만든 수 천 가닥의 플라스틱 실과, 부산 해안에서 발견한 플라스틱 조각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입니다.

### 11 Traces of the Waves

Ari Bayuaji

What if we could transform immense quantities of plastic objects on our shores into valuable material while caring for the ocean? The site-specific installation was constructed using thousands of plastic threads unraveled from plastic ropes found on beaches and the coast in Bali (Indonesia) and plastic objects gathered from Busan (South Korea) shorelines.



### 12 <떠 있는 조각>

시마 누스라트

<떠 있는 조각>은 무분별하고 급격한 도시 성장에 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연과 문화 유산 보존, 도시 개발 간의 부조화를 재조명하여, 현재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 12 Floating Fragments

Seema Nusrat

Floating Fragments serves as a commentary on urban development's swift and uncontrolled growth. This prompts us to reflect on our current trajectory, highlighting the discord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preserving nature and heritage.



### 13 <심해의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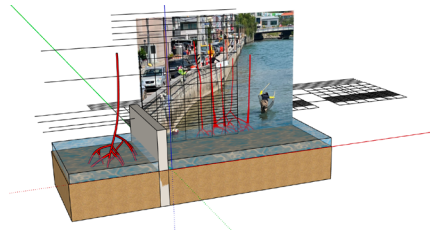
윤필남

<심해의 명상>은 깊은 바다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사색의 통로입니다. 과거 바다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심해와의 우리 관계가 착취의 일부가 되지 않는 희망적 미래를 그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13 Deep Sea Meditation

Yun Pil Nam

Deep Sea Meditation is a passage that conveys the feeling of walking along in the deep sea. It intends to look back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sea in the past and consider a future where our connection with the deep sea hopefully would not be one of exploitation.



### 14 <맹그로브 시리즈>

레나타 파도반

강과 바다가 맞닿는 연안에 군락을 이뤄 자라는 맹그로브는 폭풍과 침식을 막는 천연 장벽이자 탄소 흡수원, 어류 서식지입니다. 이 작품은 해안 지역과 자연의 안녕에 기여하는 중요 생태계인 맹그로브를 보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 14 Mangal series

Renata Padovan

Mangal Series draws our attention to the urgent need of protecting mangroves, vital ecosystems for the wellbeing of coastal communities, as barriers against erosion, carbon sinks, and nursery grounds for fish.



### 15 <바다에서의 달콤한 허우적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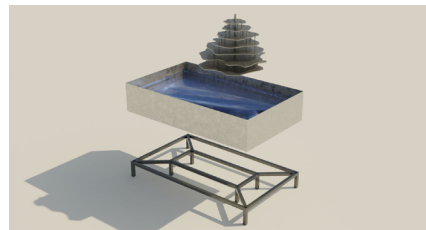
무한나드 쇼노

빈 예배당의 광원에서 창문 너머까지 뻗어 나가는 실들은 우리의 시선을 바다로 향하게 합니다. 작가는 빛의 개념을 시각에 대한 은유로 활용하며 일광과 그 너머의 이야기들과 여정을 상상하고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 15 And to Flounder in this Sea is Sweet to Me

Muhammad Shono

An installation of threads extending from a light source across the length of this empty building and beyond the windows, is guiding our gaze towards the direction of the sea. Playing with concepts of light as a metaphor for vision, the artist invites us to imagine and reflect on stories and journeys in Ilgwang and beyond.



### 16 <사무드라 만탄: 바다 휘젓기>

샤일레쉬 비알

인도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 작품은 오늘날 해양 자원 추출의 양극화 효과를 구축과 해체, 소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 16 Samudra Manthan: Churning of the Ocean

Shailesh BR

Referencing an Indian mythological story this work examines the polarizing impacts of extraction by contemplating construction, deconstruction, and consumption in current times.



### 17 <해조공예과 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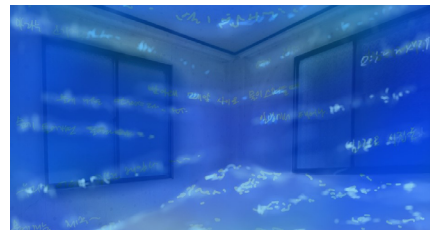
율리안 로만 & 김가영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착취하는 방식이 아닌 재생적인 관점으로 해조류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칭 '해조류 스튜디오'로 불리우길 원하는 이 작품은 기장 다시마의 재해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의 이야기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 17 Department of Seaweed Studio

Julia Lohmann & Kayoung Kim

How can we work with seaweed, a vital resource, in holistic and regenerative ways rather than exploiting it? This seaweed studio presents objects made of local seaweed and other natural materials, alongside local stories.



### 18 <발 아래 모래알 사이로 물이 스며들 때>

왕덕경

이 작품은 일광 지역에서 1965년 촬영한 소설 원작 영화 「갯마을」에서 영감받아, 현재 일광에서 살고있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일광은 그들이 오토이 살아온 터전으로, 집 그 자체이자 동시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어쩌면 진부한 이야기로만 치부당할 뻔 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 18 when water seeps through the grains of sand under your feet

Dukkyoung Wang

Inspired by the novel and film Gaenmaeul (Ilgwang, 1965), local women's stories capture their memories of Ilgwang as their living place, home and realities, debunking stereotypes.



**19 <해양 해양 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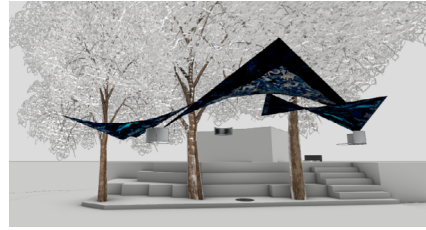
칼립소36 °21

한국 태생의 덴마크 작가 제인 진 카이센과 스위스 작가 질 오브리의 작품과 해양학자 데리아 아카이낙의 인터뷰가 나란히 배치되어 바다와의 깊고 정신적인 교감을 표현합니다.

**19 Moheet, Derya, Haeyang Ocean, Ocean, Ocean**

Calypto36 °21

Works by Korean-born Denmark-based artist Jane Jin Kaisen, and Swiss artist Gilles Aubry are juxtaposed with an interview with oceanographer Derya Akkaynak, presenting their deep and spiritual connections with the sea.



**20 <해일의 속삭임: 부산의 해양 이야기>**

로베르티나 세브야닉

해양 생물의 소리와 인간의 목소리 및 노래가 합쳐져 여러 종의 화음이 어우러진 이 작품은, 우리의 행동과 바다와 대양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 연결 및 경험을 강조합니다.

**20 Tidal Whispers: Busan's Oceanic Tales**

Robertina Šebjanič

A multispecies sonic environment, combining sounds from marine life alongside human voices and song, reflects on our actions and impact on the seas and oceans, it also highlights our shared world, connections and experiences.



**21 <흙-탕-물>**

실험실 C

지역의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장소를 탐방하는 실험실 C는 이번 여름 일광 지역의 사전워크숍 「흙탕물을 일으키자」를 기획하고 이끌면서 발견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하며, 특히 일광 바다와 일광천이 만나는 기수역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기를 제안합니다.

**21 Muddy-Water**

Lab C

Lab C led and workshop participants explore forgotten spaces around Ilgwang, and the brackish water zone of Ilgwang Stream, inviting us to rethink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22 <모래알 속에서 세상을 보다: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

아틀리에 엔엘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가 알려주는 우리의 세계는 어떠할까요? 모래는 인류에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이지만, 동시에 끝없는 수요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22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 : Unveiling South Korea's Hidden Narratives**

Atelier NL

What can a humble grain of sand tell us about our world? A significant material that fuels our ambitious developments, but also disappearing driven by our insatiable demand.



**23 <메탄올 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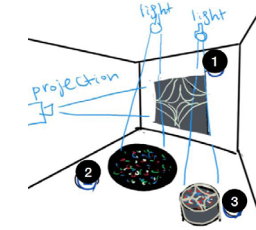
리퀴드 타임 (제이콥 볼튼 & 미리암 마티센)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녹색 통로 중 하나인 로테르담에서 싱가포르까지 항해하는 한 척의 화물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해운의 자연 친화적 미래 이미지 생성을 조사하고, 아직 멀게만 보이는 자연 친화적 전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23 Methanol Blue**

Liquid Time (Jacob Bolton & Miriam Matthiessen)

We are following the course of one cargo ship sailing from Rotterdam to Singapore, down one of the world's largest green corridors. This film examines the image of the shipping industry's green future, and a green transition that, although promised, still seems distant.



**24 <플라스틱 만다라: 생태계 순환을 위한 문양>**

정은혜 & 이준

제주 함덕 해변에서 수집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이용하여 만다라 패턴을 만든 정은혜의 설치 작품과 일명 '지구의 소리'라 불리는 슈만 공명을 시각화한 이준의 설치 및 영상 작품은 우리가 직면한 '플라스틱' 문화에 대한 절망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회복과 안녕의 영원이 함께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24 Mandala: A Pattern for the Cycle of Life**

Eunhae Jung & Zune Lee

Mandala patterns from small ocean plastics, collected from Hamdeok beach on Jeju island and generating visualisations of the earth's frequency are expressing a sense of despair facing our plastic culture and the wish to bless the ocean by removing the polluting plastic.



25 <온전해지는 방법>

카시아 몰가

이 작품은 환경 문제에서 비롯된 불안과 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돌봄으로써 어떻게 해양 생물의 안녕에 기여할지 살펴보고, 우리는 다른 생명체와 한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25 *How to Become Wholesome*

Kasia Molga

*How to Become Wholesome* investigates how at a time of environmental anxiety and loss, one could look after their body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aquatic organisms, reminding us that human and non-human species are very much part of the same ecosystem.



26 <바다 위의 별> *Stars On the Sea (S.O.S)*

장승욱 Jang Seungwook 스크리닝 Screening



27 <새> *Birds*

메릴린 페어스카이 Marilyn Fairskye 스크리닝 Screening



28 <시스테더스: 해양도시건축> *The Seasteaders*

제이콥 허위츠-굿맨 & 다니엘 켈러

Jacob Hurwitz-Goodman & Daniel Keller 스크리닝 Screening



29 <국제 수역> *International Water*

레베카 모스 Rebecca Moss 스크리닝 Screening



30 <공동의 유산> *Common Heritage*

엠마 크리츨리 Emma Critchley 스크리닝 Screening



31 <물고기 입맞춤> *Fish Kissed*

하이퍼컴프 Hypercomf 스크리닝 Screening

전시장 소개  
종합안내소, 아트샵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주최·주관/후원·협찬

Venues  
Information Center, Art Shop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Host·Organizer / Sponsors·Supporters



## 일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일광해수욕장은 ‘日光’이라는 뜻처럼 햇빛과 어우러진 수려한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부산의 오래된 바닷가 마을의 모습과 더불어 새로운 해양 레포츠와 운치 있는 카페를 볼 수 있는 부산 바다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설 <갯마을(1953)>과 1965년 제작된 동명의 영화 배경이 될 만큼 부산의 바다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광활하기보다는 조용하고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일광해수욕장은 해안마을의 역사와 바다 생태계의 태초를 생각하는 동시에, 바다와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재상상하고자 하는 2023바다미술제의 주제를 온전히 담아내는 장소입니다.

## Ilgwang beach

Located in Gijang-gun, Busan, Ilgwang beach, which means “sunshine” in Korean, boasts a gorgeous coastline in harmony with the sun’s light. More than just a space where the past and future of Busan’s sea coexist, it is also somewhere you can see the old seaside village in Busan, new marine sports, and elegant cafes. Ilgwang beach is a place that symbolizes Busan’s seaside villages, and was in fact the setting for a novel, *The Sea Village* (1953), and the 1965 movie of the same title. Quiet, as opposed to overwhelmingly vast, and with the coexistence of the past and future, Ilgwang beach is a perfect match for the theme of the Sea Art Festival 2023, which aims to reimagine our relationship with the sea in the future while also rethinking the history of coastal villages and the beginning of the sea ecosystem billions of years ago.



## Indoor Venue 1 Old Ilgwang Church

Old Ilgwang Church is located next to Icheon Bridge, which crosses Ilgwangcheon Stream. Originally established as a Methodist prayer center in 1954, from 1961 to 1971 it was utilized as a missionary school for local students. It was then repurposed as Ilgwang Church from 1972 to 2018. Since 2018, however, the space has been left vacant. With a long history of local stories, it will serve as the indoor exhibition venue for Sea Art Festival 2023, where new stories will come together once again.

## 실내전시장1 (구)일광교회

(구)일광교회는 일광천이 흐르는 이천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1954년 감리교 기도처로 쓰임을 찾은 이곳은 6.25 전쟁 후 1961년부터 1971년까지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교학교로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부터 2018년까지 일광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까지 비어 있던 공간입니다. 오랜 기간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곳은 2023바다미술제 실내전시장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곳이 될 것입니다.





### 실내전시장2 신당 옆 창고

일광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이천리 마을에는 두 개의 신당 (할매신당, 할배신당)이 존재합니다. 두 신당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당산제’를 지냈으며,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정월 대보름 전날인 음력 1월 14일마다 제사를 지내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 신당 사이에 이 당산제를 위한 제수용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2023바다미술제에서는 해안에 인접한 마을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이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 할 예정입니다.

### Indoor Venue 2 Warehouse

There are two shrines (Halmae Shrine and Halbae Shrine) in Icheon-ri Village, which is located near Ilgwang beach. For more than a hundred years, people have performed the Dangsanje (village ritual ceremony) for the well-being and peace of the village at both shrines. Even today, on the eve of the full moon on the 14th day of the first lunar month, the ceremonies are held, thereby continuing this storied tradition. Villagers set up a warehouse area between the two shrines to store all the supplies needed for the ceremonies. At Sea Art Festival 2023, a variety of artworks will be displayed here to help visitors imagine the future of coastal villages and communities.

###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

이번 2023바다미술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2023바다미술제 실험실은 일광 해수욕장 바로 뒷골목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개의 건물 1층에서 워크숍과 아티스트 토크, 체험 그리고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을 선보입니다. 워크숍을 통해 관객들은 참여작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체험하고 해양 생태계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작가들의 실내 전시 작품들은 무분별한 모래 사용으로 인한 부족, 플라스틱 오염, 일광천 주변의 사라지는 생태계, ‘녹색’해운 산업의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제시합니다. 스크리닝 프로그램 「또 다른 바다들」은 심해 채굴, 해양 산업화와 식민주의, 핵 폐기물과 해수면 상승, 도시 주거와 해양 생태계의 연관성 등의 주제를 탐구하게 합니다.

### Sea Art Festival 2023 Lab

The Sea Art Festival 2023 Lab is located at the foot of an alleyway just behind Ilgwang beach. Utilizing the first floor of three separate buildings, the Lab will host public programs, including workshops and talks, research, exhibits, and a screening. Workshops will allow audiences to meet Festival artists, learn new skills and discuss marine ecosystems, while artists' displays are presenting stories of sand scarcity, plastic pollution, disappearing ecosystems around Ilgwangcheon Stream, and questions about the possibility of a "green" shipping industry. The 「Other Seas」 screening program will present topics of deep sea mining, sea industrialisation and colonialism, nuclear waste and sea levels rising, but also connections between urban dwellings and marine ecosystems.



## 종합안내소 Information Center

2023바다미술제를 찾아주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기간 동안 일광역 앞, 일광해수욕장 두 곳에서 종합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전시 관람을 위한 자료, 2023바다미술제 기념 아트상품을 비롯하여 역대 부산비엔날레와 바다미술제 도록 및 아트상품들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11:00 - 19:00

### 위치

- 1 일광역 종합안내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111-10
- 2 일광해수욕장 종합안내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3길 34

For the convenience of visitors of the Sea Art Festival 2023, two Information Centers will operate in front of Ilgwang Station and at the Ilgwang beach during the exhibition.

### Times

11 a.m. - 7 p.m.

### Venue

- 1 Ilgwang Station Information Center  
111-10, Ilgwang-ro, Ilgw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 2 Ilgwang beach Information Center  
27, Samseong 3-gil, Ilgwang-eup, Gijang-gun, Busan, Republic of Korea

## 아트샵 Art Shop

### 아트상품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는 매년 전시의 의미를 담은 아트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감동과 추억을 남겨보세요. 아트상품은 전시장에 위치한 종합안내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Merchandise

Please visit our Information Center to find merchandise designed with the key visual of Sea Art Festival 2023. You can also find catalogs and merchandise of Busan Biennale and Sea Art Festival.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박형준

집행위원장 김성연

##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Park Heong-joon

Executive Director Kim Seong-Youn

### 연혁

1981 부산청년비엔날레 창립

1987 바다미술제 창립

1994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움 창립

1998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98PICAF) 개최

1999 (사)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립

2000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2000PICAF) 개최

2001 부산비엔날레로 명칭 변경

2003 전문예술법인 지정(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2002 - 2022 부산비엔날레 개최(매 짝수 해)

2011 - 2023 바다미술제 개최(매 홀수 해)

### History

1981 Busan Youth Biennale launched

1987 Sea Art Festival launched

1994 Busan International Outdoor Sculpture exhibition launched

1998 Bus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PICAF)

1999 Bus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Busan Biennale) Established

2000 Bus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PICAF)

2001 Change of The Name (Busan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Busan Biennale)

2003 Designated as a Professional Art Corporation

2002 - 2022 Busan Biennale (every even-numbered year)

2011 - 2023 Sea Art Festival (every odd-numbered year)

주최/주관 Hosted and Organized by



후원 Supported by



협찬 Sponsored by





